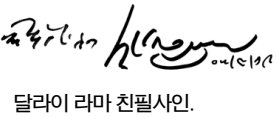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 일본 방문 본지 특점 인터뷰

달라이 라마가 12일 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월 18일 오후 2시 25분 나리타 공항을 통해 인도 델리로 출국했다. 달라이 라마는 출국에 앞서 일본 힐튼 나리타 호텔에서 현대불교와 특점 인터뷰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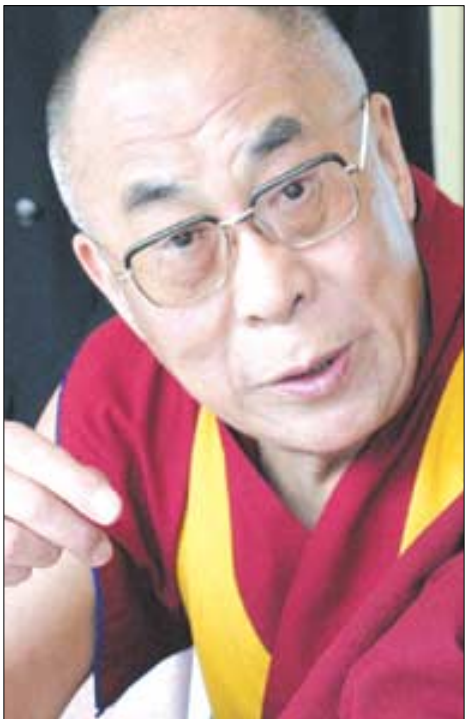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 친필서신.



현대불교 취재팀과 함께한 달라이 라마. 왼쪽부터 본사 이은아 PD, 한성희 기자, 달라이 라마, 양원석 PD.

“가까운 시기에 한국에 가고 싶어요”



본사와 인터뷰 중인 달라이 라마.

▲한국 불자들 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은 오랫동안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기원해 왔다. 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부탁한다. -이런 자리를 통해 한국의 불자 도반들에게 직접 인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이 아닌 여러 곳에서 한국 불자들을 개인적으로, 또 단체로도 만나왔다. 이같은 경험을 통해 한국불자들의 신심과 더불어 그들이 나의 한국 방문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로 인해 나 역시도 한국 불자들 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을 한국에서 만나고픈 염원이 생겼다. 나를 같은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다려주는 한국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감사드린다. 내에게는 이처럼 나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불행의 가르침과 인류공동 가치의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도덕적 책임감이 있다.”

▲그렇다면 언제쯤 방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한국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나의 한국 방문 시기는 한국 정부 측에 달려있는 문제고 또 (한국 정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사실 내가 해외를 다닐 때는 전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나는 언제나 ▲인류가치의 증진과 ▲환경의 중요성 ▲전통과 문화의 차이 존중 ▲종교 간의 조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을 방문하는 문제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방문시기 한국정부에 달려있어”

▲공교롭게도 (달라이 라마의) 방일 기간 일본을 둘러싼 아시아에서 문제와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나는 사실 아시아에서 빚어지는 일련의 문제들이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지닌 같은 인류가 아닌가. 많은 이들이 주로 서양과 동양을 나누지만 나는 이 둘 역시도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표면적으로 생각새, 문화, 생활방식 등의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는 모두 감정을 지닌 인간이다.

그러나 어떤 현실을 판단하거나 지켜볼 때 감정이 앞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망치게 된다. 따라서 바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대화와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언제나 이에 기본 사상을 두고 47지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첫째, 각각의 문화, 전문분야가 다른 여러 부류의 학자들과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달리 보이는 문화, 학문 안에 담긴 인류의 공통적인 정신가치를 찾고자 애를 쓴다. 모든 학문은 그 개념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 인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전통의 이웃종교 수행자들과의 만남이다. 나 역시 테레사 수녀 등을 비롯한 가톨릭 수행자

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톨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가톨릭, 유대교 등 이웃종교인들의 불교수행이 늘고 있다. 모든 종교에는 자비와 사랑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알고 이웃종교의 수행법에도 관심을 가지면 자신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 셋째, 이웃종교의 주요 성지를 순례한다. 명상 등의 고요한 수행법만이 아닌 직접 발로 옮기는 교류로서의 수행이다. 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이웃종교의 성지를 순례해 왔다. 당시 인도 내의 이슬람, 힌두, 불교 성지들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스페인의 파타마 등을 순례 했다. 종교를 막론하고 이처럼 성스러운 장소에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매우 큰 힘을 느낀다. 더불어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경외심도 커지게 된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관광이 아닌 순례의 목적으로 이웃종교의 성지를 방문하고 공부하도록 권하고 싶다.

넷째 돌아간신 교황도 주장했던 바와 같이, 다른 전통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교류와 대화의 장을 강조하고 싶다. 갈등과 대립은 서로를 알지 못해 좁은 견해를 갖게 되므로써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넓은 시야와 자비심으로 대하도록 노력하라.

“통일 염원하는 마음 잊지 말라”

▲한국은 유일한 분단국가다. 통일을 위해 한국 국민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는 어떤 것인가. -통일은 전적으로 (한국 국민)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바람을 이야기 하려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독일, 베트남 등의 통일에는 모두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언어, 전통 등 고유 문화유산을 지키고 문화적인 교류를 이어가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통일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 정보의 자유, 열린 사회라는 조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인류지식의 발전과 교류를 위해 정보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통일의 장애요인이다. 자유롭게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정보의 교류가 이뤄지면 이를 나누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염원도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일본 나리타-한성희 기자

“공(空) 깨달은 후 자비심 내야”

‘용수보살의 보리심론’ 강론 한국 출·재가자 150여명 친견

달라이 라마가 <용수보살의 보리심론>을 주제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총 6시간에 걸쳐 일본 가나자와 현립음악당에서 강론했다. 이날 강론에 앞서 달라이 라마는 통도사 서울 포교당 구룡사 신궁과 재가불자들을 포함한 150여 한국불자들과 친견시간을 가졌다.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 여부였다. 한국



‘용수보살의 보리심론’ 강론내용 요약

인간에게 동물과는 달리 사고의 능력이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각을 통한 고통이 다른 동물보다 더 크다. 그래서 진실한 법과 종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사상, 견해에서 비롯된 마음의 고통과 불행을 없애 마음의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의 불행은 마음의 다른 작용으로 인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외부적인 무엇, 혹은 물질로 인해 마음의 불행은 없앨 수 있다면 세상에는 마음의 고통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 욕망, 의심, 질투, 경쟁심 등 마음 속의 다양한 것들이 고통이나 괴로움을 낳는다.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소승의 가르침 위에 대승이 있기 때문에, 소승 없이 대승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대승, 소승, 밀승을 나눠 모두를 별개로 나누는 것은 불교를 모르는 행위이다.

초기 단계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단계의 수행법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대승, 밀승의 수행법과 맨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소승의 수행법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이들을 차례대로 수행하는 것이 좋다. 이번 강론의 주제는 용수보살의 <보리심론>으로, 용수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지 400년 후 나타신 쉰과래의 유식의 대표적인 논사다. 또 용수 보살 당시에는 나란대 대학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다.

<보리심론>은 선택되지 된 이유는 첫째 티베트 불교의 니마, 카구, 겐락 등 종파를 넘어서 매우 귀중한 논서이기 때문이다. 또 불교의 기본사상을 함축적으로 전담하고 있어 비교적 이해가 쉽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고집멸도 사성제를 통해 설법하실 때, 사성제의 본질, 작용, 결과의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성제를 쉽게 이해하려면 모두에게 있는 자연적인 현상인 행위를 원하고 불행은 원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살펴보면 된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행복과 불행의 감정은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라는 의식으로 인해 무언가를 느끼고, 알게 되는데 그게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고통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을 없애면 결과물인 고통을 없앨 수 있게 된다. 고통이라는 결과를 낳는 원인은 번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번뇌부터 없애야 한다. 번뇌를 끊는 상태가 곧 ‘멸제’이며 이를 통해 도달하는 것이 ‘도성제’다. ‘나’라는 존재는 5온 18계 12처에 의지해서 생겨난다. 여기에 의지한 ‘나’를 주체와 객체로 나눌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이 객체, 이를 인식하는 마음이 주체다. 인간의 마음은 또 거친 것과 미세한 것으로 나뉜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실제적인 의식을 거쳐 청정심, 여래심에 해당하는 미세한 마음을 가르킨다. 결국 미세한 마음(청정심)은 본래부터 물리지 않은 마음, 애초에 ‘남’이 없는 마음인 것이다. 외부 요인을 인식하는 마음도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생각이기에 때문에 이 자체를 공의 본성으로 볼 수 있다. 즉 조건과 원인에 의해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는 고요한 성질의 마음이 공의 자성이자 본성이다.

부처님께서서는 다른 중생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리심이라 말씀하셨다. 보리심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이타심이고, 다른 하나는 보리를 추구한다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이타심이 보리심의 원인이 되는 것과 같다. 용수보살의 <보리심론>은 세존들과 대보살들께서 보리심을 일깨운 것과 같이 나 또한 보리심을 일깨우겠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다른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리심의 모든 중생들의 각기 다른 근기와 상황에 따라 알맞은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먼저 깨달음을 얻고자 함에서 발현된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남들도 소중히 여기는 것,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귀히 여기는 넓은 마음, 보리심은 이와 같이 한없이 넓은 마음이기도 하다. 많은 보살들이 보리를 발심한 까닭은 △자유롭지

못한 중생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케 하고 △소속되지 못한 이들을 속속하게 하며 △완전한 열반에 이르지 못한 중생들을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보리심은 △속제와 △진제의 보리심 두 가지로 나뉜다. △속제의 보리심은 발심자가 이타를 위해 중생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탈을 이끌겠다는 여러 가지 행위가 상대적인 진리,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다양한 대상들에게 내는 마음을 일컫는다. △진제의 보리심은 절대적 진리를 의미한다. 발심자와 중생 사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다는 모두 각 각에게 진여, 공성이 있다. 모든 법이 공성이 있다는 면에서 한말이다. 이처럼 모든 법에 진여가 있음을 깨달은 것을 진제의 보리심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진제의 보리심은 속제의 보리심을 통해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진제의 보리심 대상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이다. 성문, 연각, 보살승은 공을 명상하고 수행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각각 동기와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 보살들의 공 수행은 보리심이 바탕이 되었으므로 이들의 공 수행은 소지장을 깨닫는데 큰 힘이 된다.

<보리심론>에서는 또 ‘보리심의 수행을 통해 윤회를 부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고정제와 잠정제를 통해서 윤회를 없앨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윤회라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 저지른 어떠한 행위에 따른 결과로서 윤회를 갖는 것인데 이 원인이 잠정제다.

잠정제는 업과 번뇌로 나뉜다. 윤회를 불러일으키는 근본 뿌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인 번뇌이다. 결국 마음을 제대로 제어하거나 다스리지 못했을 때 (번뇌로 인해) 고통과 윤회를 갖게 된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일반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게 된다. 즉 마음을 다스려야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마음알기, 마음다스리기가 매우 중요하다.

<반야심경>에는 색수성행식의 다섯 가지의 온이 모두 공하다고 한다. 요인은 본래의 고유의 성질이 없는 무자성이라고 표현한다. 모든 중의 지체의 미하는 식은 역시도 무자성이라 한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오온인 의식과 몸으로 이뤄졌는데, 바탕이 되는 온이 무자성이려면 그 바탕 위에 붙여진 나 또한 본래의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공을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양 극단을 끊은 상태 가운데 자리, 중편의 지혜를 뜻한다. 연기가 곧 공이며 연기로 보는 것이 곧 중편이다. 용수 보살은 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궁극적인 해탈과 열반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살의 대근기는 먼저 공을 깨달은 후에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믿음을 통한 자비심의 발로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대근기보다 굳건하지 못하다. 공성의 지혜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근기는 윤회를 사라지게 하는 공성의 지혜가 모든 중생에게 있음에도 이를 찾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보리심론>은 결론적으로 나와 남의 행복을 바꾸지 않으면 부처의 지혜를 누릴 수 없고, 윤회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낸다면 윤회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일시적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 불타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같이 발보리심 계승을 남독하고 평소에도 이를 마음에 품고 보리심을 일깨우도록 하라.

발보리심 계승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마음으로 불법승의 정수에 이를 때까지 항상 나는 귀의 하리라. /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정진하며,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나는 부처님 전에 머물며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리라. / 허공에 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 때 까지 내가 머물러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게 될.

달라이 라마 일본 법회관련 동영상은 부타뉴스(buddhanews.com)가 특점 제공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귀와 입’ - 통역자 게쉴 스님과 린첸 씨

“법을 넘어 마음까지 전하려 합니다”

4월 8일부터 19일까지 달라이 라마 방일 기간 동안 그의 법을 전한 사람은 실제로 세 사람이었다. 달라이 라마 자신을 비롯해 영어 통역의 게쉴 돌지 담돌(Geshe Dorji Damdul) 스님, 그리고 일본어 통역을 맡은 마리아 린첸(Mariah Rinchen) 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의 통역관은 언제 어디서든 실제로 그의 법문을 가장 먼저 듣고 전하는 귀와 입이다. 스스로 ‘새내기 통역관’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영어 통역관 게쉴 스님과 달라이 라마의 인연은 200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개인적으로 친견하는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가 선물 ‘내 영어 통역관이 되어 달라’고 제안했을 때 게쉴 스님은 “내 능력 밖의 일이라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스님은 영국에서 정식으로 어학연수까지 마치고 미국, 인도 등지에서 열린 달라이 라마의 크고 작은 대중법문의 영어 통역을 맡아오며 지난해부터 달라이 라마와 함께 생활해 오고 있다. 일본어 통역관 린첸 씨는 와세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재원으로 졸업 후에도 건축가로 활약했다. 1994년 건축가로서 경력을 쌓아갈 때쯤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던 그의 어머니가 타계했다.



마리아 린첸



게쉴 스님

“그 때 저는 일과 어머니의 간호만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려 방황하던 중에 인도로 떠나게 됐고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불교와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린첸 씨는 1995년부터 다람살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일본어 통역관이 된 것은 2000년 일본 가나자와 부쇼가야(佛生會) 재가불자들이 주축이 돼 마련한 칼라차크라 행사부터다. 이후 달라이 라마의 방일시 거의 빠짐없이 동행하며 통역을 전담하고 있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전문적인 용어가 많은 불교 등 종교 분야나 달라이 라마처럼 큰 스님의 법어를 통역하는 것은 명어로써도 동시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소감은 의외로 정반대였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법문을 설하시는 중에 항상 통역관이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어렵지 않은지 먼저 챙기십니다. 그 분의 넓은 배려와 자비심에 법단에 오르기 전 가졌던 긴장감이나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구요.” (린첸 씨) “통역관 뿐 아니라 수행자로서 달라이 라마의 결에서 얻는 에너지는 무한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학문이나 사람을 떠나 세상 모든 것에 귀 기울이는 열린 사고를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아직도 외국어 통·번역의 전문인력 양성이 큰 과제로 남아있는 한국불교에도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큰 스님의 말씀을 통역하는 사람은 단순한 통역가가 아닌 가르침의 전언자예요. 법문에 담긴 마음까지도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린첸 씨) “불교계에서 통역을 맡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금방 그 실력이 바닥납니다. 불자로서의 마음공부, 수행과 함께 통역가로서의 기술적인 훈련이 함께 이뤄져야 바른 뜻을 전달할 수 있겠지요.” (게쉴 스님) 한성희 기자

달라이 라마 방일 취재후기

‘달라이 라마 호오 사마(法王: 법왕님)’는 운사마, 분사마보다도 뜨겁게 일본 열도를 달렸다. 달라이 라마가 방일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그가 방문한 일본 전역은 ‘호오 사마’를 열광하는 일본 불자들과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가득 찼다. 달라이 라마의 공식명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달라이 라마 성하’ 혹은 ‘법왕폐하’ 쯤이 된다. 따라서 달라이 라마를 부를 때는 항상 ‘폐하’ 혹은 ‘마마’의 극존칭을 붙여야하는 것이 바른 예법이 될 거다. 그러나 정작 ‘법왕폐하’ 자신은 대중법문에 모인 5-6천여 명의 대중 가운데 가장 소탈한 모습으로 하심과 자비심을 내비쳤다. 달라이 라마는 도쿄, 구마모토 등 대중법문 장소가 아무리 커도 피도폭이면 모인 사람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일일이 눈을 맞춰가며 자애

로운 미소를 지었다. 가나자와 기자회견 시 삼엄한 경호로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강하게 저지하자 먼저 ‘괜찮다’고 나서 경찰들이 머쓱해지기도 했다. 이번 취재를 통해 기자는 왜 달라이 라마가 가는 곳이 세계 어디든 화제의 중심이 되고 싶을 수 있는 많은 대중이 모이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흔히들 말하는 강렬한 카리스마가 아닌 모든 중생들을 눈빛 하나, 손짓 하나라도 배려하려는 달라이 라마의 진정어린 자비심 때문이었다.